

제9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4.12.17.(화) 15:00 ~ 17: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위원 총 14명 중 11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노재성 부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원재 평의원, 정영욱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불참위원 : 김홍환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이홍서 평의원
- 배석 : 대학혁신단 부단장, 기획처장, 의과대학장

4. 의 안

○ 보고사항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변경 및 개최 일정
-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입학생 관리 방안
- 첨단분야 증원에 따른 준비사항
-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준비사항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5. 주요 회의 결과

가. 보고사항

- 기획팀장은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변경과 차년도 정기회의 개최 일정을 설명하다.
- 대학혁신단 부단장은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들이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부 계획을 제시하다. 이재호 의장은 특히 자유전공학부생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제도 첫해의 운영이 입학생의 만족도와 평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다.
- 기획처장은 첨단분야 학생정원 증원에 따른 2028년까지의 장기적 준비 사항과 2024~2025년 계획 이행 현황을 설명하다.

<간서명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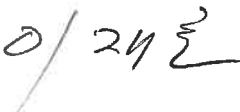
의 장

이재호 - 1 -

- 의과대학장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원 충원, 교육장비, 시설 등 준비 사항을 설명하다.
- 강원구 평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신관 및 교육연구동 신축 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교육부에 증원을 신청할 당시의 학교 준비계획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지적하다. 신축 계획 중단에도 불구하고 송재관 증축 등을 통해 하드웨어적 준비는 가능하겠으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준비는 또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정원으로 80명을 제안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현 시점에 정원을 줄일 수 없으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시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한 의견임을 설명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2025학년도에 110명의 정원을 확정하고 모집 요강에 공표한 것은 학교가 신입생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입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고려될 수 없는 방안임을 언급하다. 입학생 수를 줄이는 시도보다는 입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본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뒤늦게 확인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사전에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강원구 평의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학교의 대외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다. 이에 총장,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대학평의원회의장, 의과대학 교수회의장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다.
- 이재호 의장은 병원에서 임상교육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과 사전에 합의하였는지를 질의하다. 이에 의과대학장은 구두로 언급된 사안임을 설명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 답하다.
- 이재호 의장은 시설 마련 방안과 관련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질의하였고, 의과대학장은 송재관 증축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보고하다. 이재호 의장은 해당 계획이 법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언급하다.

<간서명 란>

의 장

0/24  - 2 -

- 이재호 의장은 2025년과 같은 대폭 증원은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여파가 10년을 가는 만큼 2025년 입학생 수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입학유예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 입학 첫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는 등 다양한 충격 완화 방안 구상이 필요하며, 학칙 개정 등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과대학장은 학장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다.

나.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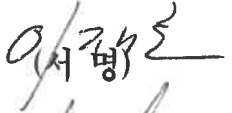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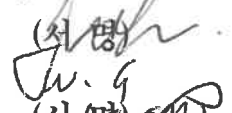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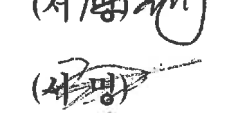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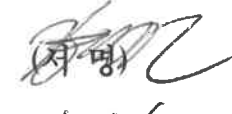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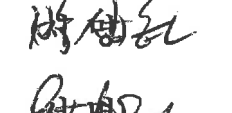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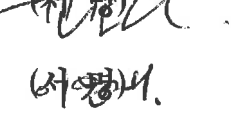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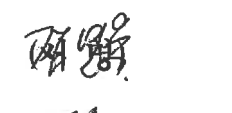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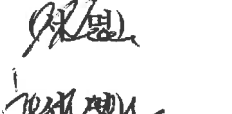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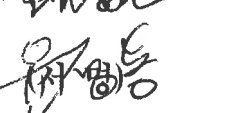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4조(기구) 별표1 : 연구기관 신설(첨단바이오융합연구소)
- 제8조(대학원) 및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별표2 : 학과 신설(미래모빌리티공학과)

-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다.

2024. 12. 17.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이재호	
부의장	노재성	
평의원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원재	
평의원	정영욱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간 사	윤정용	